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방 하원도 공화당이 218석을 차지, 과반수를 구성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10월 미 생산자 물가 상승... 물가 부담
- Bloomberg: 미 신규 실업 청구건, 지난 5월 이래 가장 낮아
- Bloomberg: 연준 이사 Kugler, “연준은 인플레이와 일자리에 집중해야”
- CNNBusiness: 미국인 부채 늘지만 그만큼 소득도 증가

#### [미국 금융]

- NYT: 왜 달러가 계속 강세일까?

####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머스크의 ‘정부효율부’는 실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 Bloomberg: JP모건, “트럼프 관세 정책은 성장 저해, 인플레이 확대 초래”

#### [뉴욕시]

- Bloomberg: 맨해튼 임대료, 7월 이후 최고치

#### [미국 생활]

- CNNBusiness: 미국에서 집 마련에 연봉 10만8천불 필요해

#### [물류]

- WSJ: 미 동부 항만 노동 협상 재개

#### [오일]

- Bloomberg: IEA “내년 석유 시장은 매일 1백만 배럴 과잉 공급”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버버리, 매출 20% 감소 후 브랜드 개편 약속
- CNNBusiness: 디즈니, 재무 전망과 스트리밍 사업 흑자 발표
- WSJ: 엔비디아, 2025년 휴머노이드 로봇용 컴퓨터 출시 예정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Producer Prices Rise, Risking Pressure in Fed’s Favored Gauge**

#### **10월 미 생산자 물가 상승... 물가 부담**

- 미 생산자 물가지수가 9월에 0.1% 상향 조정된 후에, 10월에도 9월보다 0.2% 상승했다고 연방 노동통계청은 목요일 밝혔다.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2.4% 상승했다.
-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하고는 9월에 비해 0.3%, 작년 전월에 비해서는 3.1% 상승했다.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의 강세에 이

어 생산자 물가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들로 인플레이와 금리 경로가 좀 더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Initial Jobless Claims Dropped to Lowest Since May Last Week**

**미 신규 실업 청구건, 지난 5월 이래 가장 낮아**

- 지난주 미 신규 실업청구건수가 올해 5월 이래 가장 낮았다. 파업과 허리케인에도 불구하고 구인 수요가 여전히 양호한 편임을 보여주고 있다.
- 11월 9일에 끝난 주의 청구 건수는 4천건이 줄어든 21만7천건을 기록했다.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 수치 22만건보다 적은 수준이다.
- 현재 청구 건수는 지난 2년간의 평균 수치보다 낮다. 4주 연속 평균 청구 건수도 22만1천건으로 줄어들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Kugler Says Fed Must Focus on Both Inflation and Jobs Goals**

**연준 이사 Kugler, “연준은 인플레이와 일자리에 집중해야”**

- 연준 이사인 Adriana Kugler는 현재 일자리 시장이 둔화되고 연준의 인플레이 목표 2%로 더디게 진전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연준의 관리들은 계속해서 인플레이 목표와 고용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지만, 더딘 속도와 일자리 둔화라는 연준의 두 가지 목표 모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구체적으로 그는 인플레이가 둔화되지 않거나 빠를 경우에 금리 인하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갑자기 노동시장이 둔화되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CNNBusiness: Americans' debt is growing — but so are incomes**

**미국인 부채 늘지만 그만큼 소득도 증가**

- 미국인들이 기록적으로 부채가 쌓고 있지만, 많은 가구들은 부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뉴욕 연준의 분기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가구의 부채는 9월 말 사상 최고치인 17조9천4백억 달러로 나타났다. 특히 크레딧 카드와 용자 규모가 늘고 있다.

- 그러나 동시에 대부분의 가구는 세후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3분기 가처분 소득은 21조8천억 달러로 수입 기준 부채 비율은 82%이다.
- 그러나 연체율도 여전히 늘고 있다.

CNNBusiness 기사

### [미국 금융]

#### **NYT: Why the Dollar Keeps Getting Stronger** 왜 달러가 계속 강세일까?

- 9월 말 최저치를 보였던 달러가 3개월간 지속적인 약세에서 반등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 후에 반등하고 있다.
- 달러는 어제 수요일 올해 최고치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공약을 검토하면서 달러의 예상 수준을 조정했다.
- 달러 가치의 상승은 글로벌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달러가 모든 해외 환율 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일 등 핵심 원자재는 달러로 책정된다.
- 트럼프 당선인은 약달러를 선호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과 투자자들은 그의 정책(관세 인상 정책과 세금 감면 정책)이 오히려 반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NYT 기사

###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What Can Musk'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Actually Do?**

#### 머스크의 '정부효율부'는 실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 트럼프는 연방 관료 체제를 제외하고 교육부 등 최소 한개의 연방 부처를 없애길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가 창안한 것이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이다.
- 이 부서는 그 기능을 수행한 다음에 2026년 7월에 사라질 예정이다. 이는 연방 의회가 부여한 연방 부처가 아닌 이유도 있다.
- 이 부처의 수장이 된 일론 머스크는 2조 달러의 연방 지출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지출 삭감이 연간 지출 삭감인지, 10년 기준 지출 삭감인지는 불확실하다.
- 하지만 그가 발표된 연간 수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우리는 정부 지출 6조5천억 달러에 존재하는 낭비와 사기행위를 없앨 것이다."라고 말했다.

-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머스크는 메디케어 사기 행위의 근절과 공동 토지의 매각에 관심이 큰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JPMorgan’s Kelly Says Trump Tariffs to Hit Growth, Fan Inflation**

**JP모건, “트럼프 관세 정책은 성장 저해, 인플레이 확대 초래”**

- JP모건 자산관리 부분의 책임자인 David Kelly는 트럼프 당선 후에 주식 랠리로 가려졌던 리스크를 지적했다.
- 그는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부담을 주고 미 인플레이션을 키울 수 있다. 관세를 위한 관세는 전세계를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 다른 전문가들도 트럼프의 감세와 관세 정책이 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고 말했다.
- TD Securities의 전략가들은 연준도 트럼프의 정책을 감안하면서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중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

**Bloomberg: Manhattan Apartment Rents Rise to Highest Level Since July**  
**맨해튼 임대료, 7월 이후 최고치**

- 맨해튼 임대료가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맨해튼 임대료의 중간값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한 4,295달러이다. 브루클린은 3.2% 상승한 3,600달러, 퀸즈 북서부 지역은 4.8% 상승한 3,350달러를 기록했다.
- Miller Samuel의 회장 Jonathan Miller는 10월부터 급등한 모기지율이 임대료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높은 모기지율 때문에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임대 시장이 활발해지는 것이다. 맨해튼에서 새로운 임대 계약은 10월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24% 증가했다.
- Miller는 경제 정책상 모기지율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없고, 임대료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생활]

**CNN Business: You need to make \$108,000 to afford a home in America**  
**미국에서 집 마련에 연봉 10만8천불 필요해**

- Oxford Economics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새로운 단독 주택을 구매하고 재산세와 보험비를 감당하기 위해선 연소득 10만7천 7백달러가 필요했다. 2019년 5만6천8백달러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 2024년 3분기, 미국 가구의 36%만이 새로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2019년 3분기에는 59%였다. 주택 구매 가능성은 월별 지급액이 개인 소득의 28%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 특히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 등 캘리포니아 도시들이 가장 비싼 주택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가장 저렴한 도시로는 중서부 주변 지역인 클리블랜드, 루이빌, 디트로이트, 세인트루이스 등이 있다.
- 플로리다, 애리조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일부 도시는 고령자의 대규모 유입으로 지난 5년 동안 주택 구매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CNNBusiness 기사

### [물류]

#### **WSJ: U.S. Port Labor Talks Resume, and Sail Into Choppy Waters** 미 동부 항만 노동 협상 재개

- 미국 항만 노조 측과 회사 측의 노동 협상이 재개되었다. 양측은 항만 시설 자동화 문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만약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난 달 미국 동부 항구를 멈췄던 파업이 재개될 수 있다.
- 노조 측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는 완전 자동화는 물론, 반자동화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회사 측인 미국해운동맹(United States Maritime Alliance)는 노조가 해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 회사 측은 1월 20일 시작될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회사 측에 우호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파업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해운사가 얻은 막대한 이익을 언급하며, 임금을 6년간 62% 인상하는 합의에 이르도록 압박했었다.
- 미국소매업협회(National Retail Federation)는 올해 말 수입 예측을 상향 조정하면서, 수입업자들이 파업에 대비해 미리 상품을 들여오고 있다고 밝혔다. 11월에 약 215만 개의 컨테이너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 달 전 예측보다 13% 증가한 수치이다.

WSJ 기사

### [오일]

#### **Bloomberg: Global Oil Market Faces a Million-Barrel Glut Next Year, the IEA Says** IEA “내년 석유 시장은 매일 1백만 배럴 과잉 공급”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글로벌 석유 시장이 하루 100만 배럴 이상의 공급 과잉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 IEA는 중국의 석유 소비가 9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여기에 OPEC+가 다음 달부터 증산 계획을 시작하면 과잉 공급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IEA 석유 산업 및 시장 담당 Toril Bosoni는 “중국 석유 수요 둔화는 단순히 경제 침체 때문이 아니다. 전기차, 고속철도, 화물 운송에서 가스 사용 등이 중국 석유 수요 둔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 IEA는 올해 글로벌 오일 소비가 하루 92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에 비해 증가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준이다. 내년에는 수요가 하루 99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IEA는 친환경 에너지가 점차 교통과 발전 부문에서 석유를 대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Burberry CEO Vows to Overhaul Brand After 20% Drop in Sales**

##### **버버리, 매출 20% 감소 후 브랜드 개편 약속**

- 버버리 그룹은 7월에 Joshua Schulman을 새로운 CEO로 임명했었다. Schulman은 체크무늬와 트렌치코트로 잘 알려진 외투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9월 28일로 끝난 분기 동안 버버리의 매출은 20% 감소했었다. 7월 퇴출된 Jonathan Akeroyd CEO는 버버리 브랜드를 고급화하고 비싼 가죽 핸드백을 판매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충성도 높은 고객들만 잃고 전략은 실패했었다.
- Schulman은 버버리의 외투를 비롯한 다양한 카테고리의 품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권위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Schulman은 “경기 침체가 끝나면 중국 고객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때 버버리의 개성을 다시 갖춰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Schulman은 4천만 파운드 규모의 비용 절감 계획을 시작하고, 매장 운영 방식 개선, 온라인 판매 제품 재조정을 통해 회사의 고성능 문화(high-performance culture)를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 **CNNBusiness: Disney gives investors years to cheer about**

##### **디즈니, 재무 전망과 스트리밍 사업 흑자 발표**

- 오늘 목요일, 디즈니가 3년간의 밝은 재무 전망을 제시했다. 디즈니는 대규모 테마파크 확장, 영화 프로젝트, 실시간 방송에 대한 투자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 디즈니의 분기 순이익은 74% 증가한 4억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회계연도 순이익은 거의 50억에 달했다.
- 디즈니는 스트리밍 사업이 반등했다고 밝혔다. 6월에 끝난 분기에서 4천7백만 달러의 이익을 보며 첫 번째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분기에서 3억2천1백만 달러의 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회계연도에는 26억 달러의 손실을 봤었다.

CNNBusienss 기사

### WSJ: Nvidia Readies Jetson Thor Computers for Humanoid Robots in 2025

#### 엔비디아, 2025년 휴머노이드 로봇용 컴퓨터 출시 예정

- 엔비디아가 2025년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새로운 컴퓨터 Jetson Thor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처음 공개된 Jetson Thor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로봇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인간 및 주변 환경과 더 잘 상호작용할 수 있다.
- 엔비디아는 로봇 제조 분야에서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기술 제공자로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다.
- 테슬라는 2025년 말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Optimus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 로봇 및 엣지 컴퓨팅 부문 부사장 Deepu Talla는 엔비디아가 테슬라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휴머노이드 로봇은 상당한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건설, 헬스케어, 가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인간-기계 상호 작용을 재편할 수 있다.

WSJ 기사

[보고서]

### "가상화폐 규제 풀어라"...美 업계, 증권거래위원회에 촉각 로빈후드 CLO·前CFTC 위원장·현 SEC 위원 등 거론

미 대선에서 '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임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상화폐 업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1억 달러가 넘는 정치 자금을 쏟아부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가상화폐 업계는 최우선 과제로 증권거래위원회(SEC) 재편을 꼽고 있다.

업계는 개리 겐슬러 위원장의 현 SEC가 처벌 위주의 정책을 밀어부치면서 한때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가 붕괴하는 등 성장이 차단됐다고 보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